

과여학생부 건설을 제안합니다.

수신 : 각 학과 과장님, 집행부

발신 : 18대 자주적 총여학생회

하나. 과 여학생부가 필요하나요?

두울. 과여부장은 어느 자리 소속 인가요?

세엣. 과여부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엣. 과 여학생부 한 해 계획을 어떻게 짜나요? (예)

일만 여학우와의 경~쾌한 소통을 준비하는

하나. 과여부장의 필요성

과 일에 관심 없는 여학우들이 많습니까?

우리과는 여학우와 남학우가 조화롭게 어울리나요?

(여)대학생으로 느끼는 불평등한 문제가 있나요?

아직도 남성과 결혼에 의존하는 여학우가 있나요?

과 여학우들이 여성으로 느끼는 복지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우리과는 완전하게 성폭력 없는 건강한 과인가요?

아직도 '여성다움', '남성다움' 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나요?

과라는 작은 단위에서도 과장님이 모두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과여부장님은 과집행부로서 또한 여성으로서 과 내에서 뿐 아니라 도처에 널려 있는 문제들을 한해동안 과학우분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사람이지요.

최고 지성의 전당에서 살아가는 여대생들이 오히려 여성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서 외진작에 이런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문제들을 알지 못했을까 하며 후회하고 현실에 순응하며 여성으로서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개척하지 못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결혼과 가정에 의존하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젊고 변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대학이라는 곳에서부터 발견하고 새로운 해답을 실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여부장님들은 과내에서 여학우들이 적극적으로 과행사에 참여하고 건강한 의식을 가지면서 양쪽 모두 조화롭게 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너무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려서 어렵다구요?

그럼 우선 과여부장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 봅시다.

두울. 과여부장의 소속은?

① 과학생회의 집행부서입니다.

=> 과여부는 과학생회의 집행부서입니다. 또한 과사업을 여학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과사업에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축제 때 벌이는 과 행사 혹은 체육대회에서 여학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지요. 대개 여학우들은 과행사에는 안주거리 나르거나 과전굽기, 체육대회 때는 응원만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총여학생회의 확대운영위원이며, 단대 여학생회의 운영위원입니다.

=> 총여학생회는 전체 여학우들의 생각과 요구를 모으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중앙 조직이며 단대여학생회와 과여학생부장님들은 총여학생회 확대운영위에 들어오셔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들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이든 진정으로 학우들이 원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니까요.

세엣. 과여부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① 기본적으로 과 여학우들을 활동력 있게 챙기는 사람입니다.

=> 알게 모르게 여학우들은 소극적이고 의존적으로 살아오도록 교육 받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대생인데..' 라고 하는 생각 이면에 거의 남성 위주의 대학과 사회에서 의존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되며 어떤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길 꺼려하는 편입니다. 여성들 스스로가 자기 삶에 보다 적극적인 주인으로 나서도

록, 가려져 있는 본성을 확~실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과여부장님은 활동력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예를 들면, 체육대회에서 남학우들 만의 축구대회나 농구대회 보다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을 만드는 것입니다.

② 과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방지하고 나아가 과 학우들의 성관념을 바로 세워 줍니다.

=> 남학우가 더 많은 과 같은 경우는 대개 폭력적이고 군대식의 관점을 갖고 동기, 후배를 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 전통이란 이름으로 후배들에게 군기교육을 시키거나 폭력적 언행으로 비민주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모습 뿐 아니라, 모꼬지나 과 행사에서 후배, 혹은 신입 여학생에게 성추행을 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일이 과 내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앞으로 같이 지낼 사이이기 때문에 자기만 참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넘겨 버리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죠. 성폭력이라는 것이 약자에게 남길 상처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개념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과여부장님이 가장 앞서서 실천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는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없는 건강한 과로 만들겠다는 자치 규약을 만듭니다.

* 성폭력이란..

학내에서 뿐 아니라 공동체로 생활하는 집단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문제가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은 법적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폭력을 당하고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학내에서 매년 성폭력 문제가 일어나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선배와 후배라는 권력관계, 애인사이, 또한 교수와 학생 간에 알게 모르게 자행되고 있는 성폭력! 성을 매개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일련의 강제 및 통제 행위로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함하는 것이 성폭력입니다. 여자가 몸가짐을 똑바로 해야...라는 말은 더 이상 논리가 아닙니다.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바꾸는데서 부터 성폭력은 예방될 수 있겠죠? 처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어느 집단에서든 스스로 성폭력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다짐. 그것이 해결방안입니다.

③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사회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평등한 문제를 인식하게끔 합니다.

=> 4년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더라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과 승진에 불리함을 당합니다. 혜택받은 계급으로서 더 높은 지위로의 상승에 호조건을 갖춘 여학우들은 종종 '나 혼자만 잘하면..'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사회 생활에서는 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여성도 실력을 갖춰 사회로 진출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성 본래의 역할은 '가정'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의 저임금화, 여성노동력의 산업에 비급화를 가속화 한다든지, 여성을 눈요기 거리로 저하시키는 입사조건 등 정리해고를 당해도 여성의 평생직장은 가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은 분명 남성 중심적인 생각이겠죠? 개별적으로 한 개인이 해결하려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벽이고 장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스스로도 결혼이나 가정에 의존하려는 심리를 버리지 못한다면 남성에게도 큰 부담과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겠습니다.

네엠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 새로배움터

-새내기 여학우들과 선배 여학우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 여학우 대면식

-여학우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더불어 학생회로 단결을 꾀할 수 있는 자리

♣ 과 체육대회

-여학우 체전을 준비해서 여학우들이 함께할 수 있게끔 한다.

♣ 학술제, 세미나, 작은 토론회

-방법 : 과내에서 외부 강사를 섭외하고 이후 토론회

-내용 : 여성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폭력, 성매매, 여성취업난, 비정규직, 매체에 나타나는 여성 문제 등등)

<어느 과여부장의 1년 사업계획서>

1. 목표

- 과 사업의 많은 부분에서 과여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집행부들과 함께 만들어 가자!
- 일부 과 학우들이 인식하는 왜곡된 성관념을 바꾸고 우리과에서부터 성폭력을 근절하자!
- 여학우들이 과 사업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호흡하자!

2. 월별 사업계획서

- 3월 여학우 상견례
개강 파티_과여부장 소개
모꼬지_혼숙금지
- 4월 중간고사_과 학생회실 공부방 만들기
여성문제 토론회(성폭력에 관하여)
- 5월 여성 취업 강연회 듣기,
'여성 문화제' 함께 준비하기.
- 6월 기말고사_과 학생회실 공부방 만들기
여름 농활_여학우들과 여성농민반, 아동반 꾸리기
여름방학 '여성문제 바로 알기' 스터디 그룹 모집
- 7~8월 스터디 그룹 활동
여름방학 여학우 모꼬지
- 9월 여성문제 토론회(대학내 잘못된 성문화에 관하여)
대동제에서 '여학우 한마당' 함께 준비 하기
체육대회_우리가 응원가 만들기
여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하기
- 10월 중간고사_과 학생회실 공부방 만들기
모꼬지_성폭력 없는 모꼬지를 위한 반성폭력 자치 내구 만들기
- 11월 차기 과여학생부장 세우기
- 12월 기말고사_과 학생회의실 공부방 만들기
과 여학우 모꼬지

3. 그 외에 꾸준히 해야 할 사업

- _성폭력 신고하기 운동
- _자보 쓰기 : 이슈가 되는 여성문제에 대해 일주이에 한번 자보를 써서 알리기
- _여학생 신문 만들기(한 학기에 한번)
- _쓰레기 분리수거 운동, 과학생회 물건을 내 물건 처럼.

총여학생회, 요즘에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 ★ 지난 1월 20, 21, 22일 까지 서울 경희대에서 열린 진여대협(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수련회를 다녀 왔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총여학생회 간부들과 함께 총여학생회 1년 나기를 준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왔어요~
-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일본군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542차 수요시위에 다녀 왔답니다.
- 당시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신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사과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한일관계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힘차게 지르고 왔습니다.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빨리 이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하 참고 기사>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손해배상을 외치며 지난 92년 1월8일 시작되었던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정기수요시위가 540번,만 11주년을 맞았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어 온 수요시위는 초등학생부터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역사교육의 살아있는 장이자 자연스러운 연대의 장이 되었다.

유엔 인권위원회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배상을 권고하였으나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일본정부와 한일 월드컵과 아시안게임,문화의 축제속에서 우리정부와 우리국민들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점점 잊어가고 있다.

할머니들을 길거리에 내버려 둔채로 말이다.

언제쯤이면 할머니들이 춥고 썰렁한 일본대사관앞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

언제나 어색한 구호를 소리치지 않아도 될런지...

- ★ 2월 둘(셋)째주 총여학생회 L.T 갑니다. 유후~

총여학생회 안윤효주랑 노진은경, 그리고 단대 여부장님(이하 집행부), 또 우리 과여부장님들과 함께 올 한해 학우들과 함께 짬나고 씩씩 하게 살기 위한 준비를 해봐요!

=>물론 여학생회 대표자나 간부가 아니라도 조화롭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멋진 분이려면 누구든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v

- ★ 예비대에서 열릴 총여학생회 강연과 세로모임을 준비합니다. 우아~

낭만과 꿈이 가득한 동아대에 이제 첫발을 디딜 우리 새내기들을 위한 성폭력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대 사정상 강연이 불가능하 면 세로모임에서 과여부장님과 함께 새내기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새내기들의 건강한 웃음 소리가 가득한 과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 ★ 학습과 인터넷 사업을 합니다.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성학 학습을 배우고 생각을 공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컴터에 총여 집이 만들어지면 매일 놀러오세요!

- ★ 총여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별, 나이, 체격, 외모 등 모든 외적요소는 따지지 않는 멋진 총여 일꾼되기!

성폭력, 성매매, 성차별 없는 아름다운 세상. 양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멋진 학교. 실천하는 지성이 만드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열여덟번째 총여학생회 일꾼이 되실 수 있답니다.